

어머니 상위정서양육방식과
청소년 자녀의 심리적 적응 및 우울감의 관계 :
모-자녀 대화시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The Relationships between Maternal Meta-Emotion Philosophy,
Adolescent's Psychological Adjustment and Depression :
The Moderating Effects of Mother-Adolescent Communication Time*

남은영(Eun Young Nahm)¹⁾

박소은(So Eun Park)²⁾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oderating effects of mother-adolescent communication tim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meta-emotion philosophy, adolescent psychological adjustment and depression. The participants for this study comprised 181 first and second grade high school students and their mothers, residing in Seoul. The results of the analyses indicated that, (a) maternal disapproving is negatively correlated to adolescents' positive world views, and that maternal laissez-faire is also negatively correlated to adolescents' emotional responsiveness. However, a positive correlation is revealed between maternal emotion-coaching and adolescents' positive self-esteem. (b) It is evident that adolescents' emotional responsiveness is influenced by maternal laissez-faire, and that adolescents' positive self-esteem is influenced by emotion-coaching. It

* 본 논문은 2013학년도 서울여자대학교 연구년 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

* 본 논문은 2014년도 한국아동학회 춘계 학술대회 포스터 발표 논문임.

¹⁾ 서울여자대학교 아동학과 부교수

²⁾ 서울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학과 아동심리전공 박사과정

Corresponding Author : Eun Young Nahm, Department of Child Studies, Seoul Women's Univ., Gongneung 2-dong,
Nowon-gu, Seoul, Korea
E-mail : nahmey@swu.ac.kr

also indicated that mother-adolescent communication time is influenced by dismissing as well as laissez-faire meta-emotion philosophy. (c) It revealed that mother-adolescent communication time, in part, has a meaningful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eta-emotion philosophy and adolescent depression. Therefore, the present study indicates that even if maternal disapproving, laissez-faire, or dismissing is practiced, adolescent depression levels decrease as mother-adolescent time lengthens.

Keywords : 상위정서철학(meta-emotion philosophy), 청소년기 심리적 적응(adolescents psychological adjustment), 청소년기 우울감(adolescents depression), 모-자녀 대화시간(mother-child communication time).

I. 서론

정서적 친밀감 및 정서에 대한 신념과 가치관의 발달은 부모와 자녀 간의 정서적 소통을 통한 상호작용에서 시작되어 평생에 걸쳐 정서 및 다양한 발달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Gottman & Nahm, 2007). 이를 설명하기 위해 Gottman, Katz와 Hooven(1996)은 단순히 정서에 대한 느낌을 뛰어넘어, 자신 및 타인의 정서에 대한 일련의 생각을 바탕으로 한 철학인 ‘상위정서’의 개념을 소개하였다. 이는 정서에 대한 태도, 신념, 가치관 등을 포함하는 상위 인지적인 포괄적 개념이다(Gottman, Katz, & Hooven, 1996).

특히 부모의 상위정서는 부모-자녀 사이의 다양한 정서적인 경험에 있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이에 따라 자녀의 정서에 대한 다양한 정서적 반응패턴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Gottman, Katz, & Hooven, 1996). 즉 ‘자기 자신의 정서를 어떻게 인식하고 수용하며 조절하는지’, 나아가 ‘자녀의 정서를 어떻게 인식하고 수용하며, 조절해주는지 그리고 적절한 한계설정 및 문제해결 방법을 제시해 주는지’에 따라 네 가지 양육방식-축소전환형, 억압형, 방임형,

감정코치형-으로 발현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Gottman, Katz, & Hooven, 1997). 첫째, 축소전환형(dismissing style) 부모는 자녀의 부정적 정서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 최소화시키거나 독이라고 생각해 다른 긍정적 정서로 전환시키기 위해 기분 전환거리를 제공한다. 둘째, 억압형(disapproving style) 부모도 역시 자녀의 부정적 감정을 비생산적이며 독이라고 여겨 억제해야 한다고 믿으며, 부모가 믿는 바른 기준과 행동에 순응하지 않을 경우 매로 다스리거나 벌을 주는 유형이다. 셋째, 방임형(permissive style) 부모는 자녀의 모든 감정표현을 거리낌 없이 받아주고 위로하지만 지나치게 관대하여 적절한 한계를 설정해 주지 못하고 자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지 못하는 양육방식이다. 마지막으로, 감정코치형(emotion coaching style) 부모는 자녀에 대한 깊은 애정과 공감에 뿌리를 둔 개념으로, 자녀의 감정을 민감하게 파악하고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 감정을 존중해 줄 뿐 아니라 부정적 정서를 조절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감정조절의 지침과 한계를 설정해주는 유형이다(Gottman & Nahm, 2007).

선행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이와 같이 자녀

의 부정적 정서를 수용하며 이를 적절히 다룰 수 있도록 돕는 감정코치형 양육방식은 아동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Gottman, Katz, & Hooven, 1996; Katz, Maliken, & Stettler, 2012).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녀의 높은 수준의 각성조절을 가능하게 하고 사회적 유능감을 높이며 이로 인해 또래관계 및 이후 자녀의 정서사회화 과정을 촉진시킨다(Gottman, Katz, & Hooven, 1996; Hessler, 2008; Shortt, Stoolmiller, Smith-Shine, Eddy, & Sheeber, 2010). 더불어 적은 행동문제, 높은 학업성취 뿐 아니라 신체적 질병도 낮음을 보고하였다(Katz & Gottman, 1997).

반면에 축소전환형, 억압형, 방임형 양육방식의 경우, 자녀는 자신이 경험하는 부정적 정서가 옳지 않다고 느껴 이를 숨기고 억제하는 방식을 배우게 된다(Gottman, Katz, & Hooven, 1996). 또는 정서경험과 연합된 처벌에 대한 기억으로 인해 불안을 경험하게 되며 정서경험에 적절하게 대처하거나 조절하지 못하고 역기능적 행동으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Gottman, Katz, & Hooven, 1997). 이에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위협적이거나 부정적인 것으로 지각함에 따라 자신의 정서경험의 의미를 탐색하거나 이를 다루는 방식을 획득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고, 나아가 문제행동 및 우울, 불안과 같은 내재화문제와도 높은 관련성이 있다고 한다(Gottman, Katz, & Hooven, 1996; Krause, Mendelson, & Lynch, 2003).

이는 정서 사회화 과정의 모델을 밝힌 Eisenberg, Cumberland와 Spinrad(1998)의 연구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부모의 양육행동변인이 자녀의 정서에 대한 반응, 정서조절, 정서에 관한 대화 등에 강력한 영향을 미쳐 정서적 상호작용에 대한 인지적 도식을 형성하도록 하기 때문이다(Denham,

Zoller, & Couchoud, 1994; Thompson & Meyer, 2007). 특히 청소년기는 발달적으로 상위인지능력이 발달하며 정서를 다루는 전략을 개발하고 정서의 수용 및 표현의 가치를 깨닫는 시기로서, 부모의 정서에 대한 신념과 그에 따른 양육태도를 통해 자신만의 정서에 대한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게 되는 시기이다(Hunter et al., 2011; Song & Nahm, 2013). 따라서 부모의 상위정서양육방식을 통해 발달된 청소년 자녀의 정서에 대한 가치관은 그들이 평소 정서를 경험하는 상황을 보다 잘 이해하고 정서의 표현이나 정서조절에 어려움을 겪지 않게 도움을 준다(Katz & Windecker-Nelson, 2002). 즉, 정서에 대한 인식과 수용, 조절 및 코칭을 잘 하는 부모의 청소년기 자녀는 정서적으로 보다 안정되어 비교적 적은 내재화 문제를 보고하며, 심리적 적응에 있어서도 더욱 적응적인 경향을 보일 것이라는 점을 예측해볼 수 있다(Katz & Hunter, 2007).

청소년기 대표적인 내재화 문제인 우울은 인간이 성장하면서 건강한 사람들도 흔히 경험하는 정서임과 동시에 지각, 판단, 기억, 인지, 사고, 태도 등에서부터 대인관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측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 상태이기도 하다(Kandel & Davies, 1986; Rao, Hammen, & Daley, 1999; Woo & Choi, 2004). 우울은 특히 사춘기를 전후로 하여 청소년기에 흔한 정서문제 중 하나로, 학업성취의 어려움과 문제행동, 불안, 상실감, 무가치감 등을 일으키며(Scott, Dearing, Reynolds, Lindsay, & Baird, 2008), 자살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성인이 되었을 때 높은 우울, 낮은 자존감, 부적응적 기능으로 이어질 위험을 갖는 요인이다(Aronen & Soininen, 2000; Harrington et al., 1994). 또한 정서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정서표현능력과도 높은 관련성을 보이는데 여러 연구

에 따르면 우울한 청소년은 정서인식이 부정확하다고 보고되며(Pai, Cho, & Lee, 2004; Reichenbach & Masterson, 1983), 정서표현을 어려워한다고 보고되고 있다(Penza-Clyve & Zeman, 2002). 그 밖에도 정서를 잘 구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이 높은 아동일수록 내재화 문제를 덜 보인다고 한다(Rieffe et al., 2008).

이러한 우울감의 경험은 호르몬 변화와 같은 신체적 변화, 학업적 부담감, 대인관계의 복잡성(Lim & Chung, 2009) 등이 그 원인이 되며, 무엇보다 부모와의 상호작용에서 경험하는 정서경험, 부모의 정서에 대한 행동과 신념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Hunter et al., 2011). Katz와 Hunter(2007)도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상위정서철학이 청소년 자녀의 우울을 낮추는 중요한 요인임을 보고한 바 있으며, 청소년기 부모-자녀 상호관계가 그들의 또래환경보다 우울을 더 잘 예측한다고 강조하고 있다(Asarnow, Tompson, Hamilton, Goldstein, & Guthrie, 1994).

한편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성격특성은 개인이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에 따른 자기개념의 개인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학습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험의존적이며, 일생의 발달단계를 통해 성숙하는 특징을 갖는다(Cloninger & Svrakic, 1997). 더불어 이러한 요인들은 이후 사회적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Nigg, 2006). 즉, 개인적인 측면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Rohner(1991)가 부모 수용-거부이론(PART)을 통해 밝힌 아동 청소년의 성격특성인 긍정적 자존감, 긍정적 자기타당성, 긍정적 세계관, 정서적 반응성 등을 포함하는 개념을 통해 심리적 적응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심리적 적응은 환경과의 상호작용 맥락에서 형성되며 다수의 연구자들은 부모, 특히 어머니의 양육행동과의 연관성에 대해 주장하고 있다(Miner & Clarke-Stewart, 2008). 구체적으로 어머니와의 정서적 상호작용 경험을 바탕으로 정서를 인식하는 방법, 표현하는 방법 등을 학습하게 됨에 따라 자신의 방법으로 이를 내면화한 성격특성이 자신의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Eisenberg et al., 1998). 특히 Shortt 등(2010) 또한 자녀가 경험하는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감정코치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의 외현화 문제가 덜 나타난다고 보고한 바 있어 부모의 상위정서양육방식과 그들의 심리적 적응과의 연관성을 추론해 볼 수 있겠다(Shortt et al., 2010).

지금까지 내용을 요약하면, 청소년 자녀가 우울감을 경험하거나 심리적 적응이 취약하다고 하더라도 어머니가 자녀의 부정적 정서를 가치롭게 여기며, 이를 효율적인 방식으로 대처하도록 안내하는 감정코치 상위정서양육방식이라면, 여러 부정적 정서경험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건강한 심리적 적응을 할 수 있을 것임을 가정해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관성을 살펴본 연구들은 거의 없으며 소수의 연구조차도 외국문헌으로, 우리나라 부모와 청소년에게 같은 결과를 적용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청소년 자녀의 우울 및 그들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어머니의 상위정서양육방식의 영향을 탐색하고자 한다.

또한 어머니의 상위정서양육방식과 청소년 자녀의 심리적 적응 및 우울감의 관계를 예측할 수 있는 변인으로 모-자녀 간 대화를 들 수 있다. 어머니의 감정코치형 상위정서양육방식은 모-자녀 간 정서에 대한 열린 대화를 통해 친밀감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삼는 것으로 시작된

다(Gottman, Katz, & Hooven, 1996). 이런 양육 방식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정서적 유대감을 강하게 하는 토대가 되어 서로가 정서적으로 연결되었다고 느끼게 된다(Gottman & Nahm, 2007). 따라서 모-자녀 간 대화는 어머니의 상위정서양육방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여러 연구결과들에 따르면 청소년 문제는 부모와의 대화가 부족하거나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 등의 기능적인 측면의 영향을 들어 설명하고 있다(Kim et al., 2008; Nam & Ok, 2001). 즉,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할 때 청소년의 문제행동이 발생하기 쉬우며, 이러한 청소년기에 예측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모-자녀 간의 대화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부모와 자녀 간 대화시간은 양적인 측면으로서, 부모-자녀 간 대화의 양이 초등학교 자녀의 학업성취를 유의미하게 예측하였고(Caro, 2011), 학교적응을 매개하는 요인으로서 중요한 역할로 작용함을 보고한 바 있다(Kang & Moon, 2005). 특히 부모가 자녀와의 대화시간을 통해 자녀의 입장과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반응을 제공할 때, 청소년 자녀의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문제해결방법에 실질적 도움을 주어(Lee, Kim, & Hyun, 2005) 심리적 부적응에 이르지 않도록 할 수 있다. 그 밖에도 Kim과 Yang(2010)은 부모의 개방적 의사소통이 청소년 자녀의 생활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모-자녀 대화시간 역시 어머니의 상위정서양육방식이 청소년 자녀의 심리적 적응과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에 조절적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비록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가 아동의 사회 정서적 발달에 중요하지만(Liang, Zhang, Chen,

& Zhang, 2012) 우리나라 청소년 자녀의 경우, 아버지보다 어머니와 더 많은 의사소통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며(Kim & Kim, 2001),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더 자녀의 정서의 기원과 원인에 대해 의사소통하는 경향이 있어(Fivush, Brotman, Buckner, & Goodman, 2000), 본 연구는 어머니의 상위정서양육방식과 청소년 자녀의 심리적 적응 및 우울감, 모-자녀 대화시간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 모-자녀 간 대화시간의 양에 따라 어머니 상위정서양육방식이 청소년 자녀의 심리적 적응과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조절효과를 함께 알아보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1> 어머니 상위정서양육방식이 청소년 자녀의 심리적 적응 및 우울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모-자녀 간 대화시간이 어머니 상위정서양육방식과 청소년 자녀의 심리적 적응, 우울감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서울시 소재 2개 고등학교 1~2학년 남녀학생 181명과 그들의 어머니의 자료가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은 남학생 47명(26%) 여학생 137명(74%)이었으며, 어머니의 평균연령은 44.9세($SD = 3.01$)이며, 30대가 4명(2.2%), 40대가 167명(91.9%) 50대가 10명(5.9%)이었다. 학력은 중졸 5명(2.8%), 고졸 52명(28.7%), 대졸 107명(59.3%), 대학원졸 17명(9.4%)이었다.

2. 연구도구

1) 어머니 상위정서양육방식

Gottman(1997)의 개발척도를 Nahm(2007)이 번안한 것으로, 부모 자신을 비롯한 자녀에게 일어나는 슬픔, 두려움, 화와 같은 감정에 대한 부모의 느낌을 묻는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총 81문항이며, 축소전환형(dismissing, 25문항), 억압형(disapproving, 23문항), 방임형(laissez-faire, 10문항), 감정코치형(emotion coaching, 23문항)으로 이루어진 자기보고식척도이다. 축소전환형 양육방식은 ‘내 아이가 슬퍼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이를 슬픔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며, 억압형 양육방식은 ‘화가 난다고 해서 아이가 그 분노를 그냥 드러내고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방임형 양육방식은 ‘아이가 슬퍼할 때, 아이를 위로해주는 것 말고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며, 감정코치형 양육방식은 ‘아이가 화가 났을 때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요인의 내적합치도계수(Cronbach's α)는 축소전환형 .68, 억압형 .81, 방임형 .69 감정코치형 .77이었다.

2) 청소년 우울감척도

Kovacs와 Beck(1977)의 자가 우울평정척도(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CDI)로 Cho(1989)가 번안하고 표준화한 ‘한국형 아동 및 청소년 우울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는 총 27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우울증상의 정도에 따라 각 문항에 대해 0점에서 2점으로 평정하게 되어 있으며, 총점의 범위는 0~5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많은 것을 나타낸다. 이 척도는 우울정서(dysphoric mood symptoms, 5문항),

행동문제(behavioral disturbance, 7문항), 흥미상실(anhedonia, 7문항), 신체증상(physiological symptoms, 4문항), 자기비하(self-deprecation symptoms, 4문항)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된다. 각 하위요인의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우울정서 .79, 흥미상실 .68, 행동문제 .69, 흥미상실은 .63, 자기비하 .74, 신체증상은 .63이었다.

3) 청소년 심리적 적응

심리적 적응은 Rohner(1991)의 부모 수용-거부이론(PART)에서 7가지 성격 특성을 반영하는 아동 청소년용 PAQ(Personality Assessment Questionnaire)를 사용하였다. PAQ는 42개의 항목을 포함하며 구체적으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적대감/공격성(hostility/aggression, 6문항), 의존성(dependence, 6문항), 긍정적 자존감(positive self-esteem, 6문항), 긍정적 자기타당성(positive self-adequacy, 6문항), 정서적 반응성(emotional responsiveness, 6문항), 정서적 불안정성(emotional instability, 6문항), 긍정적 세계관(positive worldview, 6문항). 4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며 건강한 심리적 적응(psychological adjustment)을 뜻하는 42점부터 심각한 심리적 부적응을 의미하는 168점까지의 범위에 걸쳐져 있다. 각 하위요인의 내적합치도계수(Cronbach's α)는 적대감/공격성은 .75, 의존성은 .47, 긍정적 자존감은 .82, 긍정적 자기타당성은 .74, 정서적 안정성은 .76, 정서적 불안정성은 .46, 긍정적 세계관은 .79이었다.

4) 모-자녀 대화시간

1주일 간 어머니와의 대화시간을 30분 단위로, ‘없다’에서부터 ‘3시간 이상’까지 청소년이 자가 체크하였다.

<Table 1> Correlations of related variables (N = 181)

Variable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 Dismissing	1																			
2 Disapproving	.49 ***	1																		
MEP 3 Laissez-faire	.27 **	.18 *	1																	
4 Emotion caching	.04	-.03	.21 **	1																
5 Hostility / aggression	-.11 *	-.11	-.04	.04	1															
6 Dependence	-.01	-.01	.01	-.14	.02	1														
7 Positive self-esteem	.02	-.05	-.10	.30 ***	.03	-.20 **	1													
8 Positive self-efficacy	.02	-.07	-.06	-.01	.32 ***	.05	.57 ***	1												
PAQ 9 Emotional responsiveness	-.06	-.05	-.15 *	.01	.27 ***	-.13	.53 ***	.53 ***	1											
10 Emotional instability	-.01	-.06	.05	-.09	.58 ***	.14	.12	.26 ***	.17 *	1										
11 Positive worldview	-.08	-.15 *	-.07	-.03	.42 ***	-.05	.64 ***	.48 ***	.42 ***	.30 ***	1									
12 Psychological adjustment	-.05	-.11	-.09	-.04	.68 ***	.14 *	.72 ***	.76 ***	.67 ***	.57 ***	.76 ***	1								
13 Dysphoric mood symptom	-.01	.12	.07	-.06	-.50 ***	-.07	-.43 ***	-.43 ***	-.43 ***	-.42 ***	-.51 ***	-.65 ***	1							
14 Behavioral disturbance	.03	.06	.13	.06	-.40 ***	.09	-.52 ***	-.51 ***	-.41 ***	-.29 ***	-.50 ***	-.57 ***	.61 ***	1						
15 Anhedonia	.047	.06	.12	-.14	-.32 ***	.01	-.50 ***	-.51 ***	-.50 ***	-.16 **	-.54 ***	-.60 ***	.62 ***	.58 ***	1					
CDI 16 Self-deprecation symptom	.08	.10	.09	-.01	-.41 ***	.11	-.56 ***	-.39 ***	-.44 ***	-.26 ***	-.56 ***	-.59 ***	.61 ***	.57 ***	.57 ***	1				
17 Physiological symptom	-.02	.11	.11	-.07	-.27 ***	.05	-.16 *	-.18 *	-.17 *	-.19 *	-.25 **	-.27 ***	.49 ***	.40 ***	.44 ***	.43 ***	1			
18 Total Depression	.03	.13	.13	-.08	-.46 ***	.025	-.54 ***	-.51 ***	-.49 ***	-.30 ***	-.60 ***	-.66 ***	.84 ***	.81 ***	.84 ***	.78 ***	.68 ***	1		
C.T. 19 Communication time	-.19 **	-.12	-.16 *	.01	.01	-.01	.10	.08	.14	.08	.11	.12	-.07	-.09	-.12	-.09	-.06	-.11	1	

Note. MEP = Meta Emotion Philosophy(1~4), PAQ = Psychological adjustment(5~12), CDI = Depression(13~18), C.T. = Communication Time.

p* < .05. *p* < .01. ****p* < .001.

〈Table 2〉 Simple regression analysis: psychological adjustment as predictor of meta-emotion philosophy (N = 181)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i>b</i>	<i>t</i>	<i>R</i> ²	<i>F</i>
Psychological adjustment	Meta-emotion philosophy				
Hostility / aggression	Dismissing	-.11	-1.43	.01	2.04
Emotional instability	Disapproving	-.76	-.82	.01	.67
Emotional responsiveness	Laissez-faire	-2.37	-2.01	.07	4.05*
Positive self-esteem	Emotion coaching	.30	4.19	.19	17.62***

p* < .05. **p* < .001.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위해 PASW Statistics 18.0을 사용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상위정서양육방식이 청소년 자녀의 우울감 및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모-자녀 대화시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III. 결과분석

1. 어머니 상위정서양육방식과 청소년 자녀의 심리적 적응과 우울감, 모-자녀 대화시간 간의 상관관계

변인 간 인과관계 분석에 앞서, 변인들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1). 먼저 어머니의 상위정서양육방식과 심리적 적응 간 관계를 살펴보면, 긍정적 자기 타당성이 감정코치형과 가장 높은 정적 관련성을 보였다($r = .30, p < .001$). 그 다음으로는 적대감/공격성이 축소전환형과($r = -.11, p < .05$), 정서적

반응성이 방임형($r = -.15, p < .05$)과 그리고 긍정적 세계관이 방임형($r = -.15, p < .05$)과 부적 상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어머니의 상위정서양육방식과 청소년 자녀의 우울감 간 관계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셋째, 어머니의 상위정서양육방식과 모-자녀 대화시간의 상관분석 결과, 어머니가 축소전환형인 경우($r = -.19, p < .01$)와 억압형인 경우($r = -.16, p < .05$)에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상관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나타난 변인들에 대해 다음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2. 어머니 상위정서양육방식이 청소년 자녀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상위정서양육방식이 청소년 자녀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한 단순회귀분석 결과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어머니의 방임형 양육방식이 청소년 자녀의 정서적 반응성에 미치는 영향의 설명력은 7%이고, 회귀식 모형이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 = 4.05, p < .05$), 방임형 양육방식이 청소년 자녀의 정서적 반응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 = -2.01, p < .05$). 또한 어머니 감

<Table 3> Simple regression analysis: mother-child communication time as predictor of maternal meta-emotion philosophy (N = 181)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i>b</i>	<i>t</i>	<i>R</i> ²	<i>F</i>
Communication time	Meta-emotion philosophy				
Communication time	Dismissing	-2.21	-2.56	.04	6.53*
	Laissez-fare	-1.08	-2.18	.03	4.77*

**p* < .05.

<Table 4> Result of interaction effects between laissez-fare and communication time on behavioral disturbance (N = 181)

Predictor variables	Model 1		Model 2		<i>R</i> ² change(<i>R</i> ²)	<i>F</i>
	<i>β</i>	<i>t</i>	<i>β</i>	<i>t</i>		
Constant	-	31.31***	-	13.30***		
Laissez-fare(A)	.08	.99	.53	2.15*	.03(.02)	3.77*
Communication time(B)	-.01	-.15	.39	1.77*		
(A) × (B)	-	-	-.56	-1.94*		

p* < .05. **p* < .001.

정코치형 양육방식이 자녀의 긍정적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의 설명력은 19%이고, 회귀식 모형 역시 유의했다(*F* = 17.62, *p* < .001). 이에 감정코치형 양육방식이 자녀의 긍정적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 = 4.19, *p* < .001).

3. 어머니의 상위정서양육방식이 모-자녀 대화 시간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상위정서양육방식이 모-자녀 대화 시간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한 단순회귀분석 결과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어머니 축소전환형 양육방식이 모-자녀 대화 시간에 미치는 영향은 4%의 설명력을 보이며, 회귀식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 = 6.53, *p* < .05). 이에 어머니 축소전환

형은 모-자녀 대화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 = -2.56, *p* < .05). 그리고 방임형 양육방식이 모-자녀 대화시간에 미치는 영향은 3%의 설명력을 보였고, 회귀식 모형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며(*F* = 4.77, *p* < .05), 방임형 양육방식이 모-자녀 대화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 = -2.18, *p* < .05).

4. 어머니의 상위정서양육방식과 청소년 자녀의 우울감의 영향관계에 있어 모-자녀 대화 시간의 조절효과

어머니 상위정서양육방식이 자녀의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이 모-자녀 대화시간에 따라 달라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조절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모-자녀 대화시간은 축소전환형과

<Table 5> Result of interaction effects between disapproving and communication time on self deprecation symptom (N = 181)

Predictor variables	Model 1		Model 2		$R^2_{change}(R^2)$	F
	β	t	β	t		
Constant	-	30.12***	-	12.94***		
Disapproving(A)	.04	.52*	.41	1.71	.01(.01)	.65*
Communication time(B)	-.19	-2.46*	.15	.68		
(A) × (B)	-	-	-.46	-1.63*		

* $p < .05$. *** $p < .001$.

<Table 6> Result of interaction effects between dismissing and communication time on self deprecation symptom (N = 1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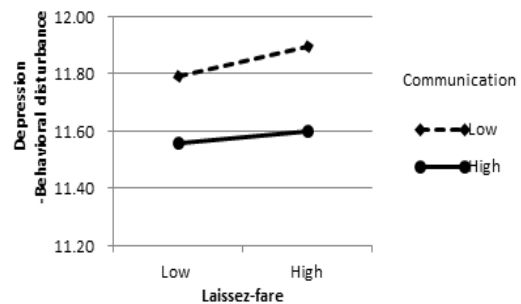
Predictor variables	Model 1		Model 2		$R^2_{change}(R^2)$	F
	β	t	β	t		
Constant	-	21.59***	-	11.01***		
Dismissing(A)	-.05	-.58	-.57	-2.45*	.03(.04)	5.72*
Communication time(B)	.01	.12	-.87	-2.32*		
(A) × (B)	-	-	.95	2.39*		

* $p < .05$.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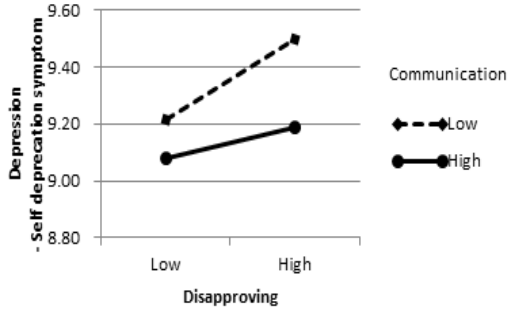
억압형, 방임형 양육방식과 자녀의 우울감 간의 관계를 유의하게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에 제시된 결과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방임형과 모-자녀 대화시간의 상호작용이 청소년 자녀의 우울감 중 행동문제요인을 유의하게 예측할 수 있었다($\beta = -.56, p < .05$). 이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는 Figure 1에 제시되었다. 회귀분석에서의 상호작용효과는 Aiken과 West(1991)가 제안한 방법을 사용하여 그림으로 그려졌다. 즉 비표준화회귀계수로 회귀식을 구하고 예언 변수인 상위정서양육방식과 모-자녀 대화시간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회귀식에 대입하여 청소년 자녀의 우울감의 예언값을 구하였다. Figure 1을 보면, 모-자녀 대화시간이 많은 경우 어머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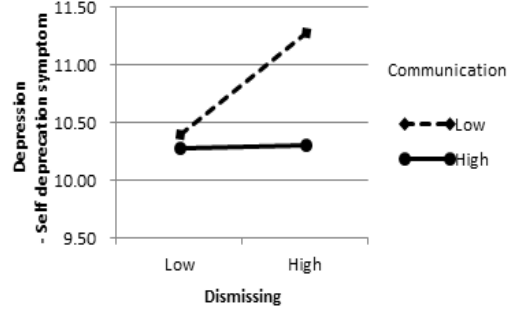
방임형의 양육방식을 많이 보인다 하더라도 청소년 자녀의 행동문제와 관련된 우울감이 낮은 반면, 모-자녀 대화시간이 적은 경우, 어머니가



<Figure 1> Interaction effects of laissez-fare and communication time on behavioral disturbance



(Figure 2) Interaction effects of disapproving and communication time on self deprecation symptom



(Figure 3) Interaction effects of dismissing and communication time on self deprecation symptom

방임형 양육방식을 보일 때 청소년 자녀의 행동 문제에 관련된 우울감이 높아지는 것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상위정서양육방식 중 억압형과 모-자녀 대화시간의 상호작용은 청소년 자녀의 우울감 중 자기비하를 유의하게 예측하였고($\beta = -.46, p < .05$), 이는 Table 5에 제시하였다. Figure 2에서 볼 수 있듯이 모-자녀 대화시간이 많은 경우에는 어머니가 억압형 양육방식을 보여도 자기비하증상을 적게 보이는 반면, 대화시간이 적은 경우에는 어머니가 억압형 양육방식을 보일 때 자기비하 증상과 관련된 우울감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Table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어머니의 축소전환형 양육방식과 모-자녀 대화시간의 상호작용이 우울감의 하위영역인 자기비하를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95, p < .05$). 이는 Figure 3에서 볼 수 있듯이, 모-자녀 대화시간이 많은 경우에는 어머니가 축소전환형 양육방식을 보여도 우울감에 변화가 없는 반면, 모-자녀 대화시간이 적은 경우에, 어머니가 축소전환형 양육방식을 보일 경우 청소년 자녀의 자기비하와 관련된 우울감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어머니의 상위정서양육방식과 청소년 자녀의 심리적 적응의 영향관계에 있어 모-자녀 대화시간의 조절효과

한편 어머니의 상위정서양육방식과 청소년 자녀의 심리적 적응의 영향관계에 있어 모-자녀 대화시간의 조절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1~2학년 학생과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어머니의 상위정서양육방식과 청소년 자녀의 심리적 적응 및 우울감, 그리고 모-자녀 대화시간 간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어머니의 상위정서양육방식이 청소년 자녀의 심리적 적응과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모-자녀 대화시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이와 함께 논의점과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어머니의 억압형 양육방식은 자녀의 긍

정적 세계관과, 방임형 양육방식은 정서적 반응성과 부적관계가 있었으며, 반면 감정코치형 양육방식은 긍정적 자존감과 정적 관계가 있었다. 또한 어머니가 방임형 양육방식일수록 자녀의 정서적 반응성이 낮았고, 감정코치형 양육방식일수록 긍정적 자존감이 높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자녀의 부정적 감정을 인정하고 공감해 주지만 자녀의 문제해결을 돕거나 행동에 대한 지침과 한계를 설정해주지 못하는 방임형 어머니의 자녀는 정서적 반응성이 낮아 자신의 정서경험을 타인과 공유하기를 힘들어하거나 긍정적인 방법으로 적절한 분출구를 찾는 것에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자녀의 정서를 예민하게 포착하고, 이를 인정해줄 뿐 아니라 스스로 부정적 감정을 다스릴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감정코치형 어머니의 자녀는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는 자녀의 부정적 정서를 공감해주고 사소한 감정까지도 진심어린 태도로 중요하게 여기는 부모의 자녀는 자신의 정서적 경험을 신뢰하고 자아존중감이 높으며, 더불어 부모가 자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안내자 역할을 제공하므로, 자신이 선택한 해결방법에 대한 성공 경험을 통해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 개념을 형성하게 된다는 선행문헌(Gottman & Nahm, 2007)과 같은 맥락이다. 그 밖에 어머니의 정서 중심적 반응이 자녀의 정서조절 및 자기조절과 관련이 있다는 Eisenberg와 Fabes(1994)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이 결과들은 자녀의 부정적 정서를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고, 공감과 더불어 적절한 코치를 제시하는 어머니의 정서에 대한 신념과 가치관이 자녀의 정서반응성, 긍정적 자존감 및 긍정적 세계관 등 그들의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의미한다.

한편 흥미롭게도 어머니가 자녀의 부정적 감정에 무관심하거나 이를 무시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축소전환형 양육방식의 경우, 그들의 청소년 자녀의 적대감/공격성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비수용적인 태도가 아동의 사회적 부적응과 상관이 있다는 연구결과(Eisenberg, Fabes, & Murphy, 1996) 및 아버지의 축소전환형 양육방식이 아동의 사회적 기술 중 주장성과 부적 상관이 있다는 선행연구(Lee & Nahm, 2012)와 일치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가능한 설명은 부모가 축소전환형 양육방식을 보이는 경우에 자녀는 자신의 감정이 부적절하며 타당하지 않다고 느끼게 되고, 결과적으로 자신이 본질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자아존중감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Gottman & Nahm, 2007). 즉 자존감이 낮은 경우 타인의 공격에 맞서 자신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못하고 회피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적대감 및 공격성이 낮게 드러날 가능성을 예측해볼 수 있겠다. 그러나 실추된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는 상황에서 보다 적대적이며 과격한 성격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자존감과 공격행동 간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일관된 결과를 보고하고 있지 않다(Seo & Kwon, 2002). 또한 축소전환형 부모들은 자녀의 부정적 감정을 축소시키고 감정조절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지만, 자녀에 대한 온정과 사랑이 결여된 유형은 아니므로 적대감이나 공격성과 같은 부정적 심리적 적응 변인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을 가능성을 유추해볼 수 있겠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상위정서양육방식은 모-자녀 대화시간과 관련이 있었다. 즉 어머니의 축소전환형과 방임형 양육방식이 모-자녀 간 적은 대화시간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

럼 자녀의 부정적 정서 경험에 대해 부모가 갖는 느낌을 아이와 거리낌 없이 이야기하거나 이를 더 나은 방법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대화를 나눌 기회를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정서에 대해 배울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부모와 정서적으로 연결되었음을 느끼지 못하고 부모를 믿을 만한 친구이자 동지라고 여기지 못하게 된다(Gottman & Nahm, 2007).

한편 어머니가 자녀의 정서를 잘 인식하고 수용하며 스스로 적절한 문제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코칭하는 감정코칭형 양육방식을 보이는 경우에 모-자녀 간 대화시간과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어머니와 자녀 간에 정서적인 공감에 잘 이루어진 관계일수록 많은 대화를 나눌 것이라는 초기 가설과 반대되는 것이다. 그러나 거꾸로, 감정코칭형 양육방식의 어머니들은 이미 자녀와 끈끈한 정서적 유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모-자녀 관계에서 대화시간의 길이가 청소년의 적응과 특별히 그들의 우울감과 관련하여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는 모-자녀 간 대화의 양 뿐 아니라 대화에 대한 질적인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보다 정확한 경로를 밝힐 필요가 있겠다.

두 번째로 논의할 결과는 어머니의 상위정서양육방식과 청소년 자녀의 우울감의 영향관계에 있어 부분적으로 모-자녀 대화시간이 완충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머니와 자녀 간의 대화시간이 많은 경우에는 어머니가 방임형 양육방식을 보여도 우울감에 변화가 없는 반면, 대화시간이 적은 경우에는 어머니가 방임형의 양육방식을 많이 보일수록 청소년 자녀의 행동문제에 관련된 우울감이 높아지고, 억압형 및 축소전환형의 양육방식을 보일 경우에는 자기비하에 관한 우울감이 상승되었

다. 이러한 결과는 Park(2004)의 부모-자녀간의 사소통 시간에 따른 청소년 자녀의 심리적 적응인 자아존중감과 우울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를 통해 어머니와 의사소통시간이 1시간 이상 일 때 청소년 자녀의 자아존중감이 높고, 우울감이 유의하게 낮다고 보고한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어머니가 자녀의 정서를 수용하고 코칭하는 양육방식을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머니와 대화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충분히 이루어진다고 지각하게 된다면 청소년 자녀의 우울감은 완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어머니의 상위정서양육방식과 청소년기 아동의 심리적 적응과 우울감 간 관계를 살펴보았다는 점이다. 특히 자녀의 정서 발달에 있어 부모와의 정서적 친밀감을 통한 정서조절을 다루는 상위정서 개념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인(Gottman et al., 1997; Katz & Hunter, 2007; Song & Nahm, 2013)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청소년기 자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직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어머니의 상위정서양육방식과 청소년 자녀의 심리적 적응 간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밝힌 본 연구의 결과는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어머니와 청소년 자녀 간의 대화시간이 어머니의 축소전환형, 억압형, 방임형 양육방식과 청소년 자녀의 우울감 간의 관계에서 조절요인임을 밝혔다. 즉, 어머니가 정서에 대해 갖는 가치관이 양육방식으로 드러났을 때, 이것이 청소년기 아동의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어머니-자녀 간 대화시간의 양이 완충 역할로서 기여한다는 것이다. 이는 어머니가 감정코칭형 양육방식을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녀와의 대화시간이 많을수록 청소년 자녀의 심리적 안녕감에 중요하게 작용함을 의미한다. 청소년기는 다양한 정서조절경험을 통해 정서에 대한 자신만의 세계를 형성해 나가는 시기이므로(Hunter et al., 2011), 어머니와의 대화를 통해 스스로 정서에 대한 정서조절능력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라 예측된다.

본 연구의 몇 가지 제한점을 토대로 후속 연구에서 보완되어야 할 점은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이 고등학생 1~2학년이라는 점과 충분히 크기 않은 표집크기로 이들 결과를 전체 청소년에게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전 청소년시기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고등학생 별로 청소년의 발달단계에 따라 표집의 크기를 확대하여 각 변인들의 경로를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연구도구는 모두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통해 측정된 부분으로, 이는 회고보고의 인지적 편향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상위정서양육방식 변인은 개인의 정서에 대한 신념과 양육방식에 관한 정보로서 설문지형 측정보다는 인터뷰나 관찰 등 좀 더 객관적인 정보를 수집할 필요성이 제기된다(Song & Nahm, 2013). 셋째, 조절효과로서 어머니와 자녀 간의 대화시간을 살펴본 있는데, 단순한 물리적 시간 뿐 아니라 대화의 내용이나 만족도 등의 질적인 측면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연구결과 해석을 더욱 명확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상위정서양육방식에 관한 중요성이 밝혀지며 국외에서는 현재까지 관련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Katz, Maliken, & Stettler, 2012), 국내에서는 상위정서에 대한 연구의 수가 적으며 특히 청소년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어머니 뿐 아니라 아버지로 대상을 확대하고 다양한 변

인들 간의 메카니즘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자녀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중재할 수 있으며(Mezulis, Hyde, & Clark, 2004), Hunter 등(2011)의 연구에 따르면 아버지의 자녀 정서에 대한 상위정서양육방식은 청소년의 상위정서 및 그들의 우울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된 바 있다(Hunter et al., 2011). 이러한 연구들은 청소년 자녀를 둔 가정에서 보다 친밀한 부모-자녀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부모의 상위정서 및 청소년 자녀의 건강한 정서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중재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 제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References

- Aronen, E., & Soininen, M. (2000). Childhood depressive symptoms predict psychiatric problems in young adults. *Canadian Journal of Psychiatry, 45*, 465-470.
- Asarnow, J. R., Tompson, M., Hamilton, E. B., Goldstein, M. J., & Guthrie, D. (1994). Family-expressed emotion, childhood-onset depression, and childhood-onset schizophrenia spectrum disorders: Is expressed emotion a nonspecific correlate of child psychopathology or a specific risk factor for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2*(2), 129-146.
- Caro, D. H. (2011). Parent-child communication and academic performance: Associations at the within-and between-country level. *Journal for Educational Research Online, 3*(2), 17-39.
- Chung, G. S. (2002). The relationship among

- self-efficacy, achievement motivation, academic achievement and parent-child relationship: A longitudinal analysi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Inha University, Incheon, Korea.
- Cloninger, C. R., & Svrakic, D. M. (1997). Integrative psychobiological approach to psychiatric assessment and treatment. *Interpersonal and Biological Processes*, 60(2), 120-141.
- Denham, S. A., Zoller, D., & Couchoud, E. A. (1994). Socialization of preschoolers' emotion understanding. *Developmental Psychology*, 30(6), 928-936.
- Eisenberg, N., & Fabes, R. A. (1994). Mothers'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Relations to children's temperament and anger behavior. *Merrill-Palmer Quarterly*, 40, 138-156.
- Eisenberg, N., Fabes, R. A., & Murphy, B. C. (1996). Parents'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Relations to children's social competence and comforting behavior. *Child Development*, 67(5), 2227-2247.
- Eisenberg, N., Spinrad, T. L., & Cumberland, A. (1998). The socialization of emotion: Reply to commentaries. *Psychological Inquiry*, 9, 317-333.
- Fivush, R., Brotman, M. A., Buckner, J. P., & Goodman, S. H. (2000). Gender differences in parent-child emotion narratives. *Sex Roles*, 42, 233-253.
- Gottman, J. M., Katz, L. F., & Hooven, C. (1996). Parental meta-emotion philosophy and the emotional life of families: Theoretical models and preliminary data.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0(3), 243-268.
- Gottman, J. M., Katz, L. F., & Hooven, C. (1997). *Meta-emotion: How families communicate emotionally*.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Gottman, J. M., & Nahm, E. Y. (2007). *Raising an emotionally intelligent child: The heart of parenting*. Seoul: Korea Daily & Business Publications, Inc.
- Harrington, R., Bredenkamp, D., Groothues, C., Rutter, M., Fudge, H., & Pickles, A. (1994). Adult outcomes of childhood and adolescent depression. III. Links with suicidal behavior.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5, 1309-1319.
- Hessler, D. M. (2008). *Family stressors, emotional competence, and adolescent risky behavior*.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Washington, USA.
- Hunter, E. C., Katz, L. F., Shortt, J. W., Davis, B., Leve, C., Allen, N. B., et al. (2011). How do I feel about feelings? Emotion socialization in families of depressed and healthy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Adolescence*, 40(4), 428-441.
- Kandel, D. B., & Davies, M. (1986). Adult sequelae of adolescent depressive symptom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3, 255-262.
- Kang, Y. J., & Moon, J. W. (2005). Family related factors' influences on school adjustment among Korean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students. *Studies on Korean Youth*, 16(1), 283-316.
- Katz, L. F., & Gottman, J. M. (1997). Buffering children from marital conflict and dissolution,

-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6(2), 157-171.
- Katz, L. F., & Hunter, E. C. (2007). Maternal meta-emotion philosophy and adolescent depressive symptomatology. *Social Development*, 16(2), 343-360.
- Katz, L. F., Maliken, A. C., & Stettler, N. M. (2012). Parental meta-emotion philosophy: A review of research and theoretical framework. *Child Development Perspectives*, 6, 417-422.
- Katz, L. F., & Windecker-Nelson, B. (2002). *The child/adolescent meta-emotion interview*. Unpublished manual, University of Washington, Department of Psychology, Seattle, USA.
- Kim, H. S., Lim, Y. H., Seo, M. H., Lee, E. J., Kim, J. H., Cho, E. H., et al. (2008). Effects of a self-development program on self-esteem and communication in middle school students.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14(3), 269-276.
- Kim, K. J., & Yang, A. K. (2010). The influences of life stress on depression in high school students: Focusing on moderating effects of vulnerable and protective factors. *The Journal of Korean Education*, 37(1), 29-55.
- Kim, S. I., & Kim, N. H. (2001). Social emotional development: Relations of parental communication patterns perceived by adolescents to their ego - identity development.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 Psychology*, 14(1), 75-89.
- Krause, E. D., Mendelson, T., & Lynch, T. R. (2003). Childhood emotional invalidation and adult psychological distress: The mediation role of emotional inhibition. *Child Abuse & Neglect*, 27(2), 199-213.
- Lee, J. Y., Kim, H. C., & Hyun, M. H. (2005). The relationship of stress,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suicide ideation among adolescent.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0(4), 375-394.
- Lee, S. R., & Nahm, E. Y. (2012). Relations between parental meta-emotion philosophies and children's ambivalence over emotion expressiveness and social skill. *The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Psychotherapy*, 4(2), 35-50.
- Liang, Z. B., Zhang, G. Z., Chen, H. C., & Zhang, P. (2012). Relations among parental meta-emotion philosophy, parental emotion expressivity, and children's social competence. *Acta Psychologica Sinica*, 44, 199-210.
- Lim, E. M., & Chung, S. S. (2009). The changes of youths' stress and depression and the long-term effects of stress on the depression.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6(3), 99-121.
- Mezulis, A. H., Hyde, J. S., & Clark, R. (2004). Father involvement moderates the effect of maternal depression during a child's infancy on child behavior problems in kindergarten.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8(4), 575-588.
- Miner, J. L., & Clarke-Stewart, K. A. (2008). Trajectories of externalizing behavior from age 2 to age 9: Relations with gender, temperament, ethnicity, parenting and rater. *Developmental Psychology*, 44(3), 771-786.
- Nam, H. M., & Ok, S. W. (2001). The effects of psychological family environment, self-control and friends characteristics of middle school students on their problem behaviors. *Journal*

-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9(17), 37-58.
- Nigg, J. T. (2006). Temperament and development psychopathology.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7(3-4), 395-422.
- Oh, J. H. (2010).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parenting behaviors and types of mother-children's communication. *The Korean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17(1), 33-48.
- Pai, D., Cho, A., & Lee, J. (2004). Nonverbal emotional recognition of face and voice in children with ADHD and depression.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3(3), 741-754.
- Park, J. M. (2004). Relationships among parent's communication style, communication between parents and adolescents,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perceived by adolesc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Jeonju, Korea.
- Penza-Clyve, S., & Zeman, J. (2002). Initial validation of the emotion expression scale for children. *Journal of Clinical Child & Adolescent Psychology*, 31(4), 540-547.
- Rao, U., Hammen, C., & Daley, S. E. (1999). Continuity of depression during the transition to adulthood: A 5-year longitudinal study of young women.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38, 908-915.
- Reichenbach, L., & Masters, J. C. (1983). Children's use of expressive and contextual cues in judgments of emotion. *Child Development*, 54(4), 993-1004.
- Rieffe, C., Oosterveld, P., Miers, A. C., Terwogt, M. M., & Ly, V. (2008). Emotion awareness and internalizing symptoms in children and adolescents: The Emotion Awareness Questionnaire revised.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5, 756-761.
- Scott, W. D., Dearing, E., Reynolds, W. R., Lindsay, J. E., Baird, G. L., & Hamill, S. (2008). Cognitive self-regulation and depression: Examining academic self-efficacy and goal characteristics in youth of a northern plains tribe.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8(2), 379-394.
- Seo, S. G., & Kwon, S. M. (2002). Relations of self-esteem and narcissism with aggressiveness.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1(4), 809-826.
- Shortt, J. W., Stoolmiller, M., Smith-Shine, J. N., Eddy, J. M., & Sheeber, L. (2010). Maternal emotion coaching, adolescent anger regulation and sibling's externalizing symptom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51(7), 799-808.
- Song, S. J., & Nahm, E. Y. (2013). Relations between maternal meta-emotion philosophy and children's social competence: Focused on the mediation effects of children's meta-emotion philosophy.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 Psychology*, 26(3), 1-17.
- Steinberg, L. (1990). Autonomy, conflict, and harmony in the family relationship. In S. S. Feldman, & G. R. Elliott (Eds.), *At the threshold: The developing adolescent* (pp. 255-276).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Thompson, R. A., & Meyer, S. (2007). Socialization of emotion regulation in the family. In J. J. Gross (Ed.), *Handbook of emotion regulation* (pp. 249-268). New York, NY, US: Guilford Press.

Woo, H. J., & Choi, J. M. (2004). The study on the effect of the maternal parenting stress on the children depression.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5(4), 191-200.

Received September 30, 2014

Revision received November 19, 2014

Accepted November 30, 2014